

KIA 돌아온 마무리 유동훈

“나까지 무너지면...” 악전투 투



유동훈이 부활의 날개를 폈다. 2009년 KIA는 로페즈를 필두로 든 든한 선발진을 앞세워 V10을 이루었다. KIA의 2009년을 대변한 선발야구 뒤에는 유동훈이 있었다. 유동훈은 2009년 57경기에 등판해 0.53의 방어율로 6승2패 22세이브와 10홀드를 기록하며 팀 우승을 조력했다.

부활의 원동력은 ‘긍정의 힘’. 유동훈은 “기술이라는 것이 1년 만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다”며 “지난해 초반에 무너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부진과 함께 이리저리 보직을 옮겨다니는 등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을 많이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편하게 공을 던지고 있다. 볼도 그렇고 마음도 안정되니까 타자들이 가깝게 보인다”고 호투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된 부진으로 확실한 목표를 세울 여유도 없었던 유동훈의 올 시즌 1단계 목표는 20개의 홀드·세이브. 시즌 초반만큼 몸관리를 잘해서 차근차근 목표를 높여가겠다는 생각이다.

유동훈은 “마무리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지는 것이다. 또 이종범 선배가 은퇴하면서 내가 팀의 최고참이 됐다. 최고참으로의 역할도 중요하다. 서재응·김희걸 등 고참급들과 함께 팀을 잘 이끌어가는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4경기 째 우천 취소 “김진우 또 한건했네”

▲김진우가 또 한건 했네 = 최희섭이 우천 취소가 결정된 뒤, 올 시즌 우천 취소된 KIA의 5경기 중 4경기가 김진우 선발 등판 예정이었다.

▲내가 등판해도 되겠네 = 훈련 전 몸을 풀기 위해 캐치볼을 하던 이강철 투수 코치, 자신의 공이 좋으면서, ▲내가 타자해줘야 할까? = 백인호 작전코치, 이강철 코치가 등판하겠다고 하자.

▲쉬었다가 내일 내리지는 = 김경진 매니저, 우천 취소가 결정된 뒤 그라운드를 내다보면서, 부상 선수들이 즐비한 KIA는 비가 반가운 상황이다.

▲10년은 살았으니까 = 서울출신의 김원섭, 방송 인타투를 한 뒤에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김여울기자 wool@



유동훈

두산전 시즌 2세이브... 팀 4연패 위기서 구원

“맞더라도 자신있게” 긍정의 힘으로 부활 날개

그러나 유동훈은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 번번이 무너지며 3.94의 방어율로 3승3패7세이브2홀드를 남기는데 그치는 등 최근 2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계속된 실패에 2012시즌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했지만 유동훈은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 1.93의 방어율로 2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마무리 한기주가 부상으로 빠지자 팀의 최고참 유동훈이 마지막 보루가 됐다.

유동훈은 지난 28일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9-8의 아슬한 리드 상황에서 등판, 2이닝을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시즌 두 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팀을 4연패에서 구해낸 귀중한 세이브이자 팀 통산 800번째 세이브

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중간과 마무리는 어차피 심리 싸움이다. 자신있게 공을 던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후배들이 좋은 공을 가지고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 같다. 최고참인데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맞을 때 맞더라도 자신있게 던지자는 마음가짐으로 마운드에 서고 있다. 팀이 어려우니까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동훈의 노력도 더해졌다. 몸관리가 철저하기로 소문난 유동훈이지만 부진 만회를 위해 어느때보다 치열한 겨울을 보냈다.

유동훈은 “부진했던 만큼 12월에 운동을 많이 했다. 캠프에서도 피칭

KIA-SK 경기 우천 취소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KIA와 SK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대구구장에서 예정됐던 두산과 삼성의 경기도 우천 순연됐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 편성된다.

한편 KIA와 SK는 2일 김진우와 마리오를 각각 선발로 내세워 시즌 3차전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핑크리본사랑 마라톤 6월 10일 상무공원에서 열려

유방암 예방·조기검진 중요성 알려

2012 핑크리본사랑마라톤대회가 오는 6월10일 오전 8시30분 광주 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는 이 마라톤대회는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에 대한 예방의식 향상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는 물론 부산·대전·대구·서울 등 대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고, (주)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광주대회에는 유방질환 무료상담 및 유방 자가진단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광주대회의 참가비는 1만 원으로 이는 모두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티셔

츠, 생수, 간식, 완주메달, 기록증(10km 참가자) 등이 제공된다. 참가부부는 10km와 5km(건강 달리기) 등이다. 이 대회를 주최한 한국유방건강재단은 유방암과 여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 ‘핑크리본 유방암 대국민 건강강좌’, 복지시설 여성 및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무료 예방 검진사업’이나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회 관계자는 “유방암은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20~30대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부끄럽다는 인식을 갖지 말고 조기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나 검진 등이 중요해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환기자 kih@kwangju.co.kr



지난해 10월 열린 '2011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대회'.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10km와 5km 두 부문에 3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청신호 켜졌다

문광부 승인... 기재부 최종절차 남아

광주시가 추진하는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가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인 30일 ‘국제대회 개최 위원회’를 통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개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최종 정부 승인은 기재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 의뢰해 오는 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국제행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최 이후 열림에 따라 건립 예정인 대규모 최첨단 U대회 수영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어 대회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중 16일 동안 개최되며, 경영 등 5종목 66개 세부종목으로 치러진다.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3000여명의 선수 등 총 6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FIFA 월드컵축구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단일종목 국제경기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메가톤급 스포츠 축제다. 노회용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은 “정부 승인이 날 경우 오는 10월22일까지 유치를향서를 FINA 본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대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광주가 2019년 대회 개최지로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 - 221 - 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